

## 『法苑珠林·祭祀篇』을 통해 본 亡者의 세계\*

강종임\*\*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目連救母 이야기에 드러난 지옥과 아귀
3. 지괴고사에 드러난 사후세계
4. 사후 49일의 의미
5.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해 영생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갖는다. 그러나 또한 누구나 예외 없이 결국 죽게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 욕망과 현실적 인식의 간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나 호기심, 그리고 매우 다양한 상상을 자극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더구나 사후세계를 결코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죽음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자, 다양한 문화를 생산해내는 모티브로 만들었다. 嫦娥가 훔친 불사약, 진시황이 애타게 찾아다니던 불로초, 도사들의 연단술은 죽음에 맞서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대변해주며,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 깨어난 사람의 경험담<sup>1)</sup>은 무한한 판타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삶과 죽음에 관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의 공통적인 전제는

\* 이 연구는 2016년 동국대학교 DG선진연구강화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唐 房玄齡 等, 『晉書·干寶傳』 卷52, 臺灣, 商務印書館, 1936. “寶兄嘗病氣絕, 積日不冷, 後遂悟云見天地間鬼事, 如夢覺不自知死.”

많은 사람들이 이승과 저승을 분리시켜 생각한다는 것(幽明雖殊道, 而人鬼乃皆實有)<sup>2)</sup>이며, 저승·지옥·중음<sup>3)</sup> 등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여정이나,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나 의식으로서 祠堂, 巫覡, 승려, 제사 등의 존재는 중국 고대의 지괴 서사에 흔히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다. 특히 저승, 지옥, 因果應報 등과 같은 개념은 중국에 불교가 유입된 이후 포교과정에서 널리 전파되었던 것으로, 이후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에조차 매우 전형화 된 형상으로 각인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저승은 완전한 상상의 산물이지만, 저승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비현실적 공간도 없을 정도로 문헌자료나 시각 자료 속에 하나의 전형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우리에게도 저승만큼은 상당히 고전적 형상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그 모습은 전형성을 띤다.<sup>4)</sup>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십구제와 같은 의례의 이면에는 삶과 죽음에 관한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오래도록 전승되고 있는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들이 불교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唐代에 편찬된 불교 유서인 『法苑珠林·祭祠篇』의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法苑珠林』은 당 高宗 연간(666~668년경) 승려 道世에 의해 편찬된 類書로서 불전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교 외의 중국 전적들을 널리 수록하여 불교 고사와 사료, 사상, 용어 등을 분류·수록한 책이다.<sup>5)</sup> 『法苑珠

2) 魯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 第9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 43쪽.

3) 중음은 '간격' 혹은 '과도적인 상태'라는 뜻이다. 시간의 간격일 수도 있고 공간의 간격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 내면의 마음이 낳은 의식의 간격일 수도 있다. 혹은 금생의 세계와 내생의 세계 사이도 중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다. (파드마삼바바, 장홍스 풀어쓰, 장순용 옮김, 『티베트 사자의 서』, 파주, 김영사, 2014, 30쪽.)

4) 김정숙, 『韓中 저승 체험담 속 저승 묘사와 사상적 경향 비교』, 『민족문화연구』 제59호, 2013, 347쪽 참조.

5) 그 가운데에는 매 편마다 '感應緣'이라는 항목을 두어 중국의 지괴에서 가져온 각종 영험한 고사와 전설들을 열거하였으며, 그러한 이야기들은 독자들에게 본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佐證의 역할을 하였다. 한다. 『法苑珠林』의 이러한 서사 전개 방식은 중국의 문인과 민중들이 불법을 더욱 신봉하게 만들고, 나아가 인도 문화와 중국 전통 문화 간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도세, 안정훈 역, 『法苑珠林』,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7~10쪽 참조.)

林』은 그 안에 담겨있는 풍부한 서사와 상상력으로 인해 중국 서사문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불교 관련 유서인 만큼 『法苑珠林』에 수록되어 있는 민간고사나 지괴 등의 이야기들 속에는 六道輪回나 인과응보 등과 같은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들이 편입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法苑珠林』 편목 가운데 「祭祀篇」에 수록된 이야기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다.<sup>6)</sup> 「제사편」에서는 우란분재(盂蘭盆齋)<sup>7)</sup>의 의미를 역설하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저승의 모습이나 이승에서의 삶에 대한 심판 등 고대 중국의 사후관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다. 제사편에 수록된 이야기들을 분석하여 고대 중국의 사후관념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 2. 목련구모 이야기에 드러난 지옥과 아귀

### 1) 지옥

『법원주림·제사편』의 첫머리에는 제사가 궁극적으로 ‘큰 복을 구하고(憑茲景福)’, ‘편안함을 얻기를 바라는(此獲安者)’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사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음력 7월 15일의 우란분재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구체화하였다. 그 하나의 예로 “부처님이 목건련에게 말씀하여 그로 하여금 온갖 맛난 음식을 장만하여 그 어머니를 구제하고, 三劫 동안의 아귀의 고통을 벗고 인간으로 나서 서로 만나보게 했다”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란분재는 백중이라고도 하며, 불경의 이야기를 근거로 현재까지

6) 본고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 編, 『한글대장경 法苑珠林』(서울, 동국대학교역경원, 2003)과 唐 釋道世 著, 『法苑珠林』(『文淵閣四庫全書』本)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7) 불교에서 말하는 齋란 본래 심신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방식을 의미했다. 그러다가 점차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며 그 공덕을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불교의식을 일컫는다. (구미래, 『사십구재』, 서울, 민족사, 2010, 34쪽.)

거행되고 있는 불교의 대표적인 절일이다. 「제사편」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목련 구모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우란분재의 공양의식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7월 15일에 自恣 때에는 七世, 현세의 부모님 가운데 액난 속에 있는 이를 위해 온갖 맛난 음식과 다섯 가지의 과일과 물병, 밥그릇, 향과 기름, 등촉, 평상, 침구 등 모든 도구를 갖추어 보시하라.<sup>8)</sup>

7월 15일은 불가에서 하안거를 마치는 마지막 날로 자자(自恣)라고 일컫는다. 이때가 되면 신자들은 집에서 각자 음식을 만들어 불공을 드리고, 의식을 마친 후에는 그 음식을 모두 절에 보낸다. 이것이 바로 우란분재이다. 이러한 의례의 목적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죽은 부모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의식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가 높은 큰 스님들이나 하안거를 마친 자자승의 힘을 빌어야 함을 누차 강조한다. 이는 보시의 중요성을 설파한 것이며, 그렇게 보시를 통해 쌓은 공덕이 업을 소멸하고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절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란분재의 유래가 되는 목련구모 고사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변문은 목련이 장사를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련은 어머니 청제부인이 세상을 떠난다. 삼년상을 마친 후 목련은 승려가 된다. 고된 수련을 거쳐 그는 아라한의 과위에 이르게 되고 부처의 초월적인 법력에 힘입어 저승으로 가서 죽은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어머니의 행방을 물어보았으나, 살아생전에 탐욕을 바라고 승려를 멸시한 대가로 어머니는 이미 지옥으로 보내졌음을 알게 된다. 〈중략〉 목련은 어머니가 아버지옥에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지옥 중에서도 가장 엄혹한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곧바로 어머니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옥의 문은 범인들에게는 굳게 닫혀있기 때문이다.

목련은 다시 한 번 부처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옥의 문을 쳐서 열 수 있는 붓을 받게 된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8) 『法苑珠林·祭祠篇』, 『한글대장경 法苑珠林』 4, 서울, 동국대학교역경원, 2003, 70쪽.

찾아 감옥의 한 칸 한 칸 살펴, 일곱 번째 방에 이르러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하게 된다. 목련은 몹시 가슴아파하며 어머니의 죄를 대신 받을 것을 청하지만 옥주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또 다시 목련은 지옥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을 석방시켜달라는 말을 직접 해 줄 것을 부처에게 간청한다. 그러나 목련의 어머니는 죄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餓鬼가 되고 만다. 목련은 왕사성으로 가서 구걸을 하여 어머니께 음식을 주지만 음식을 막 먹으려 할 때 탐욕으로 인해 돌연 화염이 일고 만다. 恒河에서 물을 가져와 갈증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이 벌어진다.

목련은 다시 한 번 부처에게로 돌아와 도움을 청한다. 부처는 그에게 7월15일 王舍城의 한 불탑 앞에 서서 아귀의 영령들에게 공물을 바치라고 알려준다. 이렇게 해야만 그들의 배고픔이 잠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련은 부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만 아귀들에게 주는 음식을 먹은 어머니를 만나지는 못한다.

결국 부처에게 다시 돌아간 목련은 어머니가 왕사성의 한 黑狗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다.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7일 밤낮 동안 경전을 읊으면서 그 성에 있는 한 불탑 앞에 서 있는 것뿐이었다. 목련은 이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그의 어머니는 결국 인간으로 다시 돌아와 극락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된다.<sup>9)</sup>

목련이 어머니를 구한 이야기는 수많은 불경 고사 중에서도 민간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인용에서 보는 것처럼 목련의 어머니는 악업을 쌓은 결과 지옥에 떨어져 아귀의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목련은 부처의 가르침에 따라 칠월 십오일에 좋은 음식과 과일 그리고 향과 기름 등을 담은 소위 우란분을 십방제승에게 바친다. 이 이야기는 민간에 회자되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혹시라도 모를 지옥고를 면하고 좋은 곳으로 천도하도록 아귀에게 공양을 바치는 ‘施餓鬼’ 풍속의 보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독특한 문학적 제재가 되어 孟蘭盆賦, 孟蘭盆經講經文, 目連變文, 目連寶卷, 目連戲曲 등으로 창작된다.<sup>10)</sup> 중국에서 목련의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인기를

9) 이 고사는 「大目乾連冥間求母變文」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목련경』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빅터 메이어 지음, 정관훈·전홍철·정병윤 옮김, 『당대변문』, 서울, 소명출판, 2012, 63~65쪽.)

10) 장춘석, 「목련설화의 ‘지옥구모’ 연원」, 『중국소설논총』 제10집, 한국중국소설학회, 1999,

누렸던 이유는 그의 이야기에 중국 고유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효에 관한 교훈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상을 가진 중국인에게 이승에서의 악업으로 저승에서 고통을 받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목련의 행위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저승은 두 모습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목련의 아버지가 있는 저승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죽어서 떨어진 지옥의 모습이다. 그런 결과는 서로 생전의 삶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목련의 아버지는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재물들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항상 육바라밀(六波羅蜜)<sup>11)</sup>을 행한 업으로 화락천궁<sup>12)</sup>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에 반해 어머니는 '집에 온 스님들을 몽둥이로 때려 쫓아내고, 공양을 올리라는 돈으로 돼지와 양, 거위, 오리 닭, 개를 사서 잘 먹여 살찌게 한 다음 잔인하게 살생하여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환락으로 삼았던 어머니 청제부인은 아버지옥에 떨어졌다. 아버지옥은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으로 아버지가 있는 화락천궁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세계이다.

지옥의 형상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찾아 감옥의 한 칸 한 칸 살펴, 일곱 번째 방에 이르러 참혹한 형벌을 받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는 구절은 현세에 죄인들을 수감하는 감옥과 비슷한 형태의 지옥을 연상하게 된다. 求母고사로 대표적인 『地藏菩薩本願經』의 귀왕 무독과 바라문 여인(지장보살)의 대화에서는 이러한 지옥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161~162쪽.

- 11) 육바라밀은 생사의 고탈을 건너 열반의 피안에 이르기 위해 닦아야 할 여섯 가지 실천 덕목을 가리킨다. 육바라밀은 구체적으로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지혜(智慧)의 여섯 가지를 말한다. 보시는 조건 없이 기꺼이 주는 생활이다. 지계는 계율을 잘 지켜 악을 막고 선을 행하는 생활이다. 인욕은 박해나 곤욕을 참고 용서하는 생활이다. 정진은 꾸준하고 용기 있게 노력하는 생활이다. 선정은 마음을 바로 잡아 통일되고 고요한 정신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지혜는 진상(眞相)을 바르게 보는 정신적 밝음이다.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5, 509~510쪽 참조.)
- 12) 육욕천(六欲天) 중의 제 5천으로, 모든 것이 자연스레 즐거움으로 변화하는 하늘을 의미한다. 『智度論』 권9, 『仁王經』 권上, 『俱舍論』 권11에 수록되었다. (一指譯, 『父母恩重經, 觀音經, 目蓮經, 盂蘭盆經』, 서울, 민족사, 1994, 123쪽.)

무독이 대답했다. “실제 지옥이 있습니다.” 성녀가 물었다. “저는 어느 지옥에 와 있습니까?” 무독이 답하였다. “위엄 있는 신이 아니면 곧 業力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죄인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옵니다. 이곳은 인간세계에서 악업을 지은 중생이 새로 죽었으나 49일이 경과한 후 대를 이어 공덕을 지어서 고난을 구제할 사람이 없고, 생시에 또한 좋은 인연을 심어놓지 못하였으면 마땅히 본디 業에 의해 지옥에 와 자연히 바다를 먼저 지납니다. 〈중략〉 성녀가 또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 무독이 대답하기를 “三海의 안은 대지옥입니다. 그 수는 백 천 개이고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이른바 큰 것은 18개를 갖고 있고, 다음 것은 500개를 두었는데 한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 것은 천백 개를 갖추었고 그 고통 또한 무량합니다.”<sup>13)</sup>

여기에 묘사된 대지옥의 규모가 상당히 많은 수를 사용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크고 작은 것의 구분은 아마도 죄의 경중과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삼천대천세계라는 거대한 공간을 논하는 불교의 우주관을 생각한다면 매우 당연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지옥에 가는 조건에 대한 언급이다. 위에 따르면 “인간세계에서 악업을 지은 중생이 새로 죽었으나 49일이 경과한 후 대를 이어 공덕을 지어서 고난을 구제할 사람이 없고, 생시에 또한 좋은 인연을 심어놓지 못한” 경우에 가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죄를 짓는 행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진다는 단순한 논리는 아닌 듯하다. 위의 내용을 뒤집어 말하면 설령 죄를 짓고 죽었을지라도 대를 이은 자손에 의해 공덕을 쌓고, 생전에 마찬가지로 조상을 위한 제사를 올리거나 보시를 하는 등 조금이라도 공덕을 쌓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이러한 논리는 『법원주림·제사편』에서 역설한 제사의 중요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목건련경』에는 좀 더 자세하게 지옥의 형상이 묘사되어 있다.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목련은 여러 지옥으로 어머니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목련이 제일 먼저 본 지옥은 죄를 지은 중생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들은 방아 속에서 몸이 토막토막으로 끊어져 피와 가죽이 어지러이 흩어져서 하루

13) 『대장경』 412, 권13, 778c~779a.

에도 만 번 씹이나 죽었다 깨어나곤 한다. 그들이 지은 전생의 죄업은 생전에 모든 중생을 잘라 죽이고 남녀들이 둘러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입으로 그 맛이 좋다고 떠들다가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목련은 다시 “검수(劍樹)지옥”을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중생들이 칼날로 된 나뭇가지 끝에 매달려야 하기에 손으로 나무를 붙잡으면 온 몸이 갈라지고, 또 발로 칼날을 밟으면 사지가 모두 갈라지는 형벌을 받는다. 그들이 지은 전생의 죄업은 “갓가지 중생들을 꼬챙이에 꿰어 불에 구워서 남nerg가 모두 함께 앉아 맛있다고 떠들며 즐긴” 것 때문이었다.

다시 “맷돌지옥”을 지나면서 죄인들의 피와 살덩이가 두 덩어리의 큰 돌에 갈려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개미와 벌레들을 많이 죽인 것이 그들의 죄였다. 또 “회하(灰河)지옥”에서는 많은 중생들이 잿물 속에서 밀려다니며 온 몸이 데어서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문이 열리는 쪽을 향해 헤엄쳐 가면 그쪽 문이 닫혀 다시 물결을 따라 표류하면서 잠시도 쉬지 못했다. 그들의 죄업은 전생에 달걀을 많이 삶아 먹은 것 때문이었다. 다시 환탕(鑊湯)지옥에 이르러 펄펄 끓는 물속에서 삶아지고 있는 중생들을 보았다. 그들의 죄는 삼보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큰 부잣집에 태어나 못 생명 있는 목숨들을 삶아먹은 것 때문이었다. 화분(火盆)지옥에서는 중생들이 머리에 불이 가득 담긴 동이를 이고 있어 두개골의 마디마디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생전에 짐승들의 골수를 많이 먹었기에 그 과보로 지옥에 떨어진 것이었다. 그 외에도 목련이 어머니가 떨어진 아비지옥에 대한 묘사도 볼 수 있는데, 그 곳에서 그의 어머니는 온 몸이 모진 불로 활활 타오르는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sup>14)</sup>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살생, 불신, 입으로 지은 구업 등 생전에 지은 업보와 함께 읽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고통이 떠오르는 섬뜩한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대중을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불교 경전의 포교적 수단이기도 하며, 이 내용을 읽는 이들로서는 자신들의 현세에서의 행위를 돌이켜보고, 경계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긴 세월을 두고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면서 지옥에 대한 형상은 매우 전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자리 잡을 수밖에

14) 一指 譯, 『父母恩重經, 觀音經, 目蓮經, 孟蘭盆經』, 서울, 민족사, 1994, 81쪽.



에 없었다.

## 2) 아귀(餓鬼)

아귀는 산스크리트어로 preta라 하는데, 이는 '주리다, 굶주리다'는 뜻의 餓에 '귀신, 혼백'이라는 뜻의 鬼를 합쳐서 한역한 것이다.<sup>15)</sup> 또 『아비달마대비바시론』의 五趣<sup>16)</sup> 가운데 아귀에 대한 언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몸이 인색하고 탐하는 몸과 말과 뜻의 악행을 짓고 더욱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고 거기에 태어나서 거기의 생으로 하여금 상속되게 하기 때문에 귀취라고 한다.

배고프고 목마름이 더하기 때문에 귀신이라고 한다. 그는 배고프고 목마름을 받을 업을 쌓아 모았기 때문에 백 천 년을 지나면서도 물이라는 이름조차 듣지 못했는데 어찌 볼 수 있었겠는가. 하물며 접촉할 수 있었겠는가. 혹은 배의 크기가 산과 같고,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큼 하는 이도 있으므로 비록 음식을 만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sup>17)</sup>

아귀의 대한 이러한 묘사를 보면 그것은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배가 크니 위장이 비대하다는 의미로 먹고 싶은 탐심은 크지만, 목구멍이 가늘어 그 탐심을 채우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불화의 일종인 아귀 도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 특히 김승희는 아귀가 인도 재래의 '父祖의 靈'의 관념과 불교의 연기·무아·윤회설을 토대로 한 중국의 전통적인 '死者의 靈' 혹은 제사의 대상이 되는 祖先을 의미하는 鬼와 결합된 형태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귀는 특히 배고픔

15) 박정원, 「초기 경전과 아귀도상에 관한 일고찰」, 『불교미술』 제28권, 동국대학교박물관, 2017, 68쪽.

16) 五趣는 사람의 선악의 정도에 따라 사후에 나아가게 되는 5군데의 세계, 즉 천상·인간·지옥·축생·아귀를 가리킨다. (전학수 편저, 『한시어사전』, 국학자료원, 2002, 541쪽.)

17) 이상의 두 인용문은 강소연, 「대승보살로서 '아귀'의 조형적 표현과 상징-조선시대 甘露幀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7집,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132쪽 재인용.

과 목마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점은 '제사와 관계된 귀신'이 아귀의 특성으로 고착화된 것이라고 추측하였다.<sup>18)</sup>

『목련전경』에도 무리를 지어 다니는 아귀와 함께 아귀로 태어난 목련의 어머니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머리는 태산만큼이나 크고 배는 수미산처럼 불렀는데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었다. 그들은 걸을 때마다 오백 대의 수레가 부서지며 구르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들이 아귀가 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생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재를 올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때문에 여러 겁 동안 좁쌀미움의 이름조차도 못들어보고 음식 맛도 보지 못해서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련의 어머니의 형상은 좀 더 구체적이다. 지옥의 문 앞에서 아들을 만난 목련의 어머니는 배가 고프면 밥 대신 쇠구슬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대신 구리물을 마시면서 지내는 지옥의 고통을 호소한다.

목련이 밥 한 발우를 들고 지옥으로 가니 목련의 어머니는 탐내는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왼손으로는 발우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사람들을 막으면서 입 속에 넣었으나 그 밥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하여 모진 불덩이가 되었다.

이처럼 아귀의 형상들은 대동소이하다. 탐욕스러움의 상징이 될 정도로 끝도 없는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한 줌의 재료 변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과보를 없애고 아귀를 구제하는 방법일 것이다. 「제사편」에는 『우미새경』을 인용

18) 김승희, 「餓鬼考-초기 한역경전에 나타난 아귀」, 『한국의 불화』 19, 성보문화재단연구원, 1999, 193~212쪽.

하여, 아귀에게 명복을 빌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귀에 떨어졌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명복을 빌면 아버지는 천상에 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아귀만은 빌어주는 명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탐애와 인색 때문에 아귀에 떨어진 것이고, 아귀가 되어서는 항상 본래의 허물을 닦고 명복 얻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귀를 위해 복덕을 지어야 한다.

이 부분에도 아귀가 되는 업보로서 탐욕과 인색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귀가 되는 존재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어머니가 그 대상이 되기도 한다.<sup>19)</sup> 자식이 아귀가 된 부모를 구하는 이야기는 대승불교적인 입장<sup>20)</sup>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고대 인도인들이 인식한 鬼의 관념과도 연관이 된다. 그에 의하면 鬼의 관념에 대한 특징은 첫째가 굶주린 존재이고, 둘째가 미혹함과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며, 셋째가 주로 父祖 중심으로 수용하면서 보편적인 조상신의 관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죽은 父祖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인식은 자손의 제사를 촉발시키는 것이 되어, 인도에서는 조상의 영혼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그 영혼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여겼다. 아울러 사후 영혼을 의미하는 용어들이 ‘餓鬼’로 한역되면서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이러한 조령제를 施餓鬼會라고 기록하였다.<sup>21)</sup>

위의 내용은 아귀에 대한 단순한 記述적 의의를 넘어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 대한 중요한 종교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자손을 중시했던 불교, 혹은 유교 이념에서 대를 잇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자손들이

19) 이러한 이야기는 사리불, 우다라, 지장보살의 두 전생담과 목련고사에는 한결같이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련고사의 연원을 고찰한 장춘석은 아귀가 되는 원인이 탐욕과 인색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성품이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正法念處經』과 내용과 함께 인도 토착민의 모권제의 영향을 들고 있다. (장춘석, 같은 논문, 172쪽.)

20) 장춘석, 같은 논문, 171쪽.

21) 구미래, 『四十九齋의 의례기반과 地獄信仰의 특성』, 『정도학연구』 제15권, 한국정토학회, 2011, 112쪽.

선조를 위하여 지내는 제사가 죄지은 선조들을 지옥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고대 인도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 관념이기도 하였다. 이는 고대 영웅서사시인 『마하바라타』에 자라뜨까루라는 수행자에 관한 이야기에서 엿볼 수 있다. 그것에 따르면 자라뜨까루라의 선조와 부친이 큰 동굴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처를 취하지 않아 자손이 없어 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자라뜨까루라는 부득이 결혼하고 자식을 얻은 후 다시 독신 생활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브라만의 세 가지 의무 가운데 하나가 선조들을 숭경하기 위해 자손들을 거느려야 한다는 것이다.<sup>22)</sup>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손이라는 강한 믿음은 중국의 효 사상과 맞물려 자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더 견고히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 3. 지괴고사에 드러난 사후세계

「제사편」에 수록된 내용은 여러 불교 경전을 인용하여 우란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 저변에는 근본적으로 이승과 구분되는 저승의 존재가 전제되며, 죽음과 사후의 세계를 대하는 고대인들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우란분재는 부모를 포함한 7대 조상을 악업에서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재를 올리는 공덕을 짓는 것이며, 그것이 조상을 지옥에서부터 구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다.

「제사편」의 감응연에는 이러한 불교의 설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괴 고사들이 기재되어 있다. 모두 13개의 응험담을 인용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후의 일을 다루고 있는 몇 편의 이야기<sup>23)</su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幽冥記』에서 인용된 쑤나라 파구현의 무당 舒禮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서례는 병으로 죽은 뒤 太山府君 앞으로 끌려간다. 다음은 서례가 태산부군 앞에

22) 장춘석, 같은 논문, 163~164쪽 참조.

23) 이하에서 인용한 이야기는 『한글대장경 法苑珠林』 4, 84~98쪽 참조.

서 세상에서 행한 일에 대한 심판을 받는 부분이다.

태산부군이 물었다.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서례는 “삼 만 육천의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지낼 때에는 소나 돼지, 염소, 닭 등을 죽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네 죄는 번철에 올려놓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바로 사람을 시켜 번철에 올려놓게 하였다. 소머리에 사람의 몸을 한 자가 쇠 작살을 들고 서례를 찍어 번철 위에 놓았다. 서례는 불에 타는 몸을 뒤축거리면서 차라리 죽으려 했으나, 죽어 지지도 않고 한 밤을 지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조상을 악업의 굴레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손의 공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살생의 계를 어긴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부를 살펴본 태산부군은 서례의 수명이 아직 8년이나 남았음을 알게 되고, 서례는 다시 이승에 돌아오게 된다. 지옥을 경험한 서례는 그 후로 다시 죽는 날까지 살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대강이다.

이야기의 전개는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계율이 어느 무엇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목건련경』에 묘사된 대부분의 죄인들이 살생의 업보로 말미암아 지옥에서의 고통을 받는 것을 고려해도 살생에 대한 금기가 얼마나 중시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冥祥記』에서 인용한 쯤나라 張應의 이야기이다. 그 주요 내용은 배가 심하게 아파 기절하였다가 며칠 만에 깨어난 장웅이 그 동안 겪은 일에 대한 것이다.

몇 사람이 강철 갈구리로 그를 끌어당겨 북쪽으로 가서 어떤 언덕에 내려놓았다. 그 언덕 밑에는 물이 끓는 솥과 칼 등 무서운 기구들이 있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서쪽에서 왔다. 키는 一丈이 넘는데 金剛杵를 들고 그들을 치려하였다. “이분은 부처님 제자인데 왜 여기까지 들어오게 했느냐?”

장웅이 이렇게 지옥에 끌려오게 된 것은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평소 佛事를 하고, 불법을 받들었던 공덕이 있었다. 그래서 저승에서는 그로

하여금 이승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삼일 간의 시간을 주어 죽음을 준비하게 하였고, 과연 장웅은 삼일 뒤 목욕재계하고 자는 듯이 죽게 된다.

이 이야기에는 불법에 대한 신봉이 이승에서의 삶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파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도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는 주인공이 저승에서 겪은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이승과 저승의 공간이 다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승을 묘사한 또 하나의 예로 『冥祥記』에서 인용한 宋나라 사람 陳安居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 진안거는 병에 걸려 숨을 거두었는데, 심장 밑이 조금 따뜻해 집안사람들은 염을 하지 않고 두었다. 7일 쯤 되는 밤에 진안거가 홀연히 깨어나 그 동안에 보고 겪은 일을 자세히 말한다. 다음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묘사한 내용이다.

어느 사람이 안거를 테리고 여러 지옥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통 받는 상황을 다 보게 했다.…… 칼을 쓰고 수갑을 찬 죄수들 수백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안거는 세 번째에 서 있었다. 뜰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쓴 어떤 사람이 죄수들 앞에 서서 죄수들의 장부를 읽었다.

진안거 앞에 차례를 기다리던 첫 번째 죄인은 결혼할 때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끝까지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는 부부로서의 서약을 어긴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심부름 하던 여제자와 간통하여 본처를 버린 두 가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들은 부부로서 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맹세를 어겼으니 그 죄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뒤에 하고 간통했으니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간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불교의 계율 가운데 하나인 “사음하지 말라(不邪淫)”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며 여기에 더해 스승과 부친을 하나로 여기는 유교적 가치관도 투영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서 있던 사람은 어느 여인의 시아버지였다. 그는 며느리가 밥그릇을 아궁이에 둔 채 깊이 잠이 들어 어린애가 기어 다니다가 밥그릇에 똥을 썼다는 이유로 “天道와 귀신이 없어 저런 더러운 짓을 하는 여자를 그대로 두는구나”라며 며느리를 사정없이 욕한 것에 대한 판결을 받고 있었다. 이를 심판하던 자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부엌에서 잠이 든 것은 허물이 아니며, 어린애는 지각이 없다. 또 이미神明에게 사죄했으니 여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나 그 시아버지가 꾸짖으면서 천도가 없다 한 것은 幽靈을 비방한 것이다. 그를 잡아오라.

사리에 맞지 않는 일로 우기는 시아버지의 구박과 절대적인 약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며느리의 모습은 전통시기 가족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많은 이들은 실제 겪을 수도 있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에 몰입하고, 시아버지에 대한 판결에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이승에서의 현실적 부조리나 다양한 삶의 질곡들이 저승에서의 합리적인 심판에 의해 말끔히 해소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교적 세계관에 매료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심판을 받은 진안거는 무고에 의해 잡혀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살아생전 사교를 믿고 행한 업보로 지옥에 떨어진 백부가 진안거를 거짓으로 고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진안거가 평소 佛法을 신봉하는 사람이었음을 인정받아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받는다. 안거는 돌아오는 길에 길을 안내하던 귀인으로부터 이승으로 돌아가 지성으로 범을 받들고 부처님의 계율을 범하지 말며, 또 저승에서 본 것들을 이승의 여러 사람들에게 자세히 알리라는 당부의 말을 듣게 된다.

마침내 이승으로 돌아오게 된 진안거는 큰 강을 건너고 아득하게 눈이 아찔해 지더니 갑자기 자기 집 앞에 돌아오게 된다. 수행하던 세 명의力士는 안거에게 제 몸으로 들어가기를 권하고, 안거는 이미 썩어버린 몸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 결국 강제로 떠밀려 육체로 들어온 안거는 앓던 병  
이 다 나아 93세까지 수명을 누린다.

이 내용에서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치게 되는 공간적 장치를 보여주고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흔히 三途川, 혹은 葬頭河라고 알려져 있는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한다. 그곳에 있는 奈河 나루를 건너야 비로소 저승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sup>24)</sup> 이승과 저승의 접점으로서 강이라는 공간을 생각하는 것은 동서양 공유의 원형적 사고이다. 예컨대 저승의 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 신화의 아케론(Acheron) 강이나 죽은 사람들의 영혼에 망각을 선사하는 명부의 강 레테(Lethe) 등을 들 수 있다. 인도의 신화 뿐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도 죽은 자가 다리를 건너야 저승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춘추시기 鄭 莊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黃泉이 저승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이후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다.

이처럼 사후의 저승 세계를 경험하고 이승에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는 고대 중국의 지괴류 고사들 가운데에 종종 보인다. 干寶가 『搜神記』를 짓게 된 창작 동기 역시 그의 형이 죽은 뒤 삼일 만에 깨어나 그 간의 일을 말해준 것 때문이라는 내용이 정사 『晉書』에도 기재되어 있다.<sup>25)</sup> 사실적 기록에 익숙한 史官으로서 그의 창작동기는 고대인들의 저승에 대한 사고를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인용한 여러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며,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야 할 곳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 사후세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원 주립·제사편』에 수록된 이 이야기들은 여느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편찬된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교화하고, 불합리한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결

24) 『시왕경』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왕전 분당까지 가려면 세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따라 나하를 건너야만 한다. 이 강의 상류는 얇은 여울물이 굽이쳐 있고, 중류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으며, 하류는 수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물살도 세고 험난하다. 죽은 사람의 죄업이 무거우냐 가벼우냐에 따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 강을 건너게 된다. 분당에 닿으면 생전의 죄업을 심판 받고서, 가벼우면 좋은 길로, 무거우면 나쁜 길로 끌려간다. (김두재 옮김, 『시왕경』, 서울, 성문, 2006, 87쪽.)

25) 『晉書·干寶傳』 卷52.



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 4. 사후 49일의 의미

초기불교의 기본 교리는 무아와 연기법, 사성제, 팔정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부처 당시에는 이외에도 생전의 선업이나 공덕에 의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윤회의 관념도 존재했다. 이는 당시 인도 대중의 일반적 관념이었다. 즉 인도 대중의 여러 민간 신앙적 관념이 전화되어 육도(天上, 人間, 畜生, 阿修羅, 餓鬼, 地獄) 윤회의 개념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業說과 결합되어 대부분 일반 불교신자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물론 성불과 해탈의 가르침이 같이 수용되었지만 대부분 대중의 세계관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이 업설과 윤회전생의 관념이었다.<sup>26)</sup>

다시 말해 인간은 살아생전 지은 업으로 인해 죽어서 심판을 받고, 그 판결에 따라 육도를 윤회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앞 장에서 인용하였던 「제사편」의 이야기에도 이러한 관념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업이란 인간의 '행위(karma)'라고도 할 수 있으며,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 인간의 행위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신체를 통한 행위의 身業, 다음으로 말이나 입을 통한 행위인 語業 혹은 口業, 마지막으로 생각 또는 마음을 통한 행위인 意業이 바로 그것이다.<sup>27)</sup>

윤회의 관념에서 보면 이생에서 자신이 지은 업, 즉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업은 가져가며, 그 업의 결과에 따라 죽은 자는 중음세계를 거쳐 육도세계를 돌고 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쁜 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지게 된 사람은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인과에 의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면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은 매우 낙심하며 남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인간의 윤리적 잣대로 보았을 때 나쁜

26)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우리저승세계, 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27) 허암, 『불교에서의 죽음 이후, 중음세계와 육도윤회』, 서울, 예문서원, 2015, 18쪽 참조.

것을 하면 지옥에 가서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인과적 세계관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법원주림·제사편』에서 역설하던 우란분재의 종교적 의의라고 볼 수 있다.

6세기 이후 유교의 조상숭배와 효사상이 여러 공양과 긴밀하게 결합하여 음력 7월 보름의 행사로 정착된 우란분재는 천도제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듯하다. 결국 우란분재는 고통 받고 있는 망자들을 위해 행하는 齋이며, 특히 부모·조상의 영가를 천도하는 의미, 그리고 하안거를 마친 수도승들을 맞아 법회를 열고 공양·보시하는 의미가 어우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공덕으로 인해 부모와 조상의 영가를 보다 좋은 곳으로 천도할 수 있다는 의미의 결합은 망자의 유족과 후손들에게 천도제의 필요성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사후 49일 내에 가족이 대공양 등으로 복을 지어 망자를 구원해 줄 것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게 된다. 이후 당·송대의 여러 기록을 통해 사후의 칠칠제가 중요한 민간의 불교의례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당나라 말에는 『시왕경』의 편찬과 함께 종래 일곱 번의 칠칠제에 사후 백일·1년·3년이 되는 날을 더해 모두 열 번의 재를 지내는 시왕신앙이 성행하였다. 시왕은 인도의 염라왕이 중국에 들어와 도교의 태산부군과 결합한 뒤 인간의 관료계급에 따라 10명의 시왕으로 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으면 명부세계를 다스리는 시왕으로부터 생전의 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sup>28)</sup>

『시왕경』에서 일컫는 열명의 왕(冥府十王)은 49일 간 망자를 재판하는 秦廣王·宋帝王·五官王·閻羅大王·變成王·泰山王의 7왕과 平等王·都市王·五道轉輪王을 말한다. 『시왕경』에 따르면 죽은 뒤 망자가 7일 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죽은 사람이 중음세계 즉 명도를 혼자 외롭게 건다가 처음으로 7일을 맞이하면 서 중음세계의 첫 번째 재판관인 진광왕 앞에 서며, 살아생전 살생을 했는지에 여부에 대해 심판한다. 다시 7일이 지나면 삼도천을 건너고, 초강왕에게 재판을 받

28) 구미래, 같은 책, 48~52쪽 참조.

는다. 죄의 경중을 입고 있던 옷의 무게로 재는 과정을 거쳤기에 나체로 서게 된다. 나중에라도 남겨진 가족들을 통해 반드시 공양을 올리겠다는 추선공양을 다짐하며, 망자는 다시 7일(삼칠일)을 보내고 송제왕의 앞에 선다. 송제왕 앞에서 망자는 남녀 간의 부도덕한 정사를 범하는 사음의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심판받는다. 망자가 죽은 지 28일째 되는 날(사칠일)이 되는 날 망자는 네 번째 재판관인 오관왕의 법정에서 서는데, 여기에는 저울이 놓여있고, 생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오관왕에게 간청을 해 다시 7일의 선고유예를 받은 망자는 죽은 지 35일째 되는 날 다섯 번째 재판관인 염라대왕 앞에 가야만 한다. 염라대왕은 수정으로 만든 거울을 가지고 있으며, 이 거울에는 죽은 자가 생전에 범한 죄가 남김없이 비춰진다. 염라대왕에게 다시 7일간의 선고유예를 받은 망자는 42일째 되는 날 변성왕의 법정에서 서게 된다. 그는 오관왕과 염라왕의 보고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재판을 하고 다시 7일 간의 시간을 망자에게 준다. 다시 7일이 지난 49일째 되는 날, 망자는 태산왕의 재판을 받고 6개의 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다시 태어나게 된다.<sup>29)</sup>

이 때 망자가 선택한 문은 완전히 그가 지은 업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 하니, 생전에 지은 업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고대인들에게 사후 가게 될 미지의 세계는 그 자체로, 더 나아가 그 곳에서 받아야 되는 생전의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 현세에서의 삶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는 단죄에 대한 내용으로 단지 살생이나 사음 정도만 명시되었으며, '생전에 지은 행위'라는 포괄적인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록에는 인색한 삶을 산 자, 도둑질을 한 자, 불효를 저지른 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구하지 않은 자, 상대방을 헐뜯은 자, 타인에 대한 분노나 원한 등을 억제하지 못하여 살인 등의 강력 범죄를 범한 자, 전생에 남을 속인 사기꾼,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 사음한 자, 부모나 스승의 물건을 훔친 자 등 매우 현실적인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어 현실에서의 행위가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사후나

29) 허암, 같은 책, 62~78쪽 참조.

내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불교적 세계관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인간으로 태어나 지은 행위에 대한 반사와 관조를 통해 또 다른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49일 간의 중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시간은 별거벗은 망자의 영혼이 생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심판받게 되면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되는 신성한 통과의례의 시간과도 같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바로 다음 존재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세도 내세도 아닌 곳에 얼마동안 머물면서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유<sup>30)</sup>에 머무는 기간은 망자의 업에 따라 육도 가운데 하나를 결정짓는 시간이자 다음 생의 인연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따라서 망자의 보다 나은 내세를 기원하는 의식이 마련되어 있었음은 매우 당연하며, 중유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7일 최대한 49일의 시간, 그리고 그 7일 마다 받게 되는 심판에 대해 공덕을 쌓고, 복을 빌어야 하는 것이다. 사후에 대한 이러한 관념으로 인해 49재는 삼칠재, 사십구재라는 망자를 위한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승과 저승의 다름, 그 미지에 세계를 대하는 인간의 의식 속에는 아마도 이승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바로 49일 간의 여정이며, 이러한 관념들은 저승을 담아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 4. 나오는 말

『법원주립·제사편』에서는 제사의 중요성을 우란분재 의례를 통해 강조한다. 의례의 목적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을 지도 모르는 돌아가신 부모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제사를 통해 쌓인 공덕이 망자의 업을 소멸하여 지옥에

30) 불교의 윤회사상에 따르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인간은 끊임없이 생과 사를 되풀이하는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1회의 삶은 生有·本有·死有·中有라는 네 종류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각자의 업에 따라 모태에 잉태되는 순간을 '생유'라 하고, 출생 후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전의 존재를 '본유'라 하며, 죽는 순간을 '사유', 그리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의 존재를 '중유'라고 한다. (구미래, 같은 책, 42쪽.)

서 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완성된다. 이러한 논리는 망자를 보다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지금도 행해지는 49재라는 의례로 정착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우란분재의 기원이기도 하며, 고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목련구모의 이야기에 드러나는 지옥과 아귀를 살펴보고, 『법원주림·제사편』에 수록되어 있는 사후세계를 묘사한 지괴류 고사들을 살펴본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며, 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야 할 곳이 정해지게 된다는 것이 사후세계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적 교리를 담고 있는 판타지 서사에서 묘사되는 저승 세계는 망자가 이 49일이라는 중유의 기간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묘사이다. 49재는 망자가 보다 나은 내세에 태어날 수 있도록 임종 이후 49일 간에 걸쳐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를 위해 대신 공덕을 짓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죽음과 관련된 종교적 의례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를 보내야 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상실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고, 이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러한 사후 시간에 대한 세계관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삶에 대한 관조와 반성을 필연적으로 초래한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저승에 관한 이야기는 이승에서의 삶의 연장이다. 49일 간의 여정으로 이승에서 드러나지 않는 선악이 드러나며, 지옥에 끌려가는 이야기들을 통해 아무리 권장해도 지켜지지 않는 선업의 어려움을 느낀다. 이승과 저승은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분명히 다른 공간과 시간의 세계이지만, 저승의 이야기는 현실에서의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바람이자 투영일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는 저승 판타지들을 통해 사람들의 그와 같은 바람을 보게 된다.

〈參考文獻〉

- 『대장경』 412, 卷13, 778c~779a.
- 唐 房玄齡 等, 『晉書·干寶傳』 卷52, 臺灣, 商務印書館, 1936.
- 唐 釋道世 著, 『法苑珠林』, 『文淵閣四庫全書』本.
- 구미래, 『사십구제』, 서울, 민족사, 2010.
- 김두재 옮김, 『시왕경』, 서울, 성문, 2006.
- 魯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 第9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
- 도세 지음, 안정훈 옮김, 『法苑珠林』, 서울, 지식올판드느지식, 2009.
- 대한불교조계종 역경위원회 編, 『法苑珠林·祭祠篇』, 『한글대장경 法苑珠林』 4, 서울, 동국대학교역경원, 2003.
- 빅터 메이어 지음, 정관훈·전홍철·정병운 옮김, 『당대변문』, 서울, 소명출판, 2012.
- 一指 譯, 『父母恩重經, 觀音經, 目蓮經, 盂蘭盆經』, 서울, 민족사, 1994.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1995.
- 전학수 편저, 『한시어사전』, 국학자료원, 2002.
-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우리저승세계, 2005, 한국콘텐츠진흥원.
- 허암, 『불교에서의 죽음 이후, 중음세계와 육도윤회』, 서울, 예문서원, 2015.
- 강소연, 「대승보살로서 '아귀'의 조형적 표현과 상징-조선시대 甘露幀을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67집, 원광대학교원불교사상연구원, 2016.
- 구미래, 「四十九齋의 의례기반과 地獄信仰의 특성」, 『정토학연구』 제15권, 한국정토학회, 2011.
- 김승희, 「餓鬼考-초기 한역경전에 나타난 아귀」, 『한국의 불화』 19, 성보문화재단연구원, 1999.
- 김정숙, 「韓中 저승 체험담 속 저승 묘사와 사상적 경향 비교」, 『민족문화연구』 제59호, 2013.
- 박정원, 「초기 경전과 아귀도상에 관한 일고찰」, 『불교미술』 제28권, 동국대학교박물관, 2017.
- 장춘석, 「목련설화의 '지옥구모' 연원」, 『중국소설논총』 제10집, 한국중국소설학회,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World of the Dead through FaYuanZhuLin-JiSiPian

Kang, Jong-Im

〈法苑珠林·祭祀篇〉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ceremony through Uranbunjae (fifteenth day of the seventh moon by the lunar calendar). It is the celebration for dead ancestors that may be in pain in Hell by showing gratitude for their benevolence so that they could reach salvation. This is completed with a logic that the virtue made by offering celebration can extinguish the sin of the dead and relieve them from Hell. This is now settled as 49jae in order to pass away the dead to a better place and let them in peace.

As seen in the similarity of the after life stories in MuLian Saving His Mother (目连救母) is that the dead are judged by his sin and the severity of the sin leads to different destination. It is the popular perspective.

The afterlife in fantasy novels containing Buddhism portrays the happenings of 49 days the soul experiences. Additionally 49 day funeral is a ceremony of the living for the dead to have a better afterlife. It is not 49 day only a religious ceremony but also the time for the remnant to get used to the loss and prepare for the farewell.

Also that this view of the afterlife leads people to become contemplative and to reflect is not to be overlooked. Afterlife stories are an extension of temporal life. Through 49 days of journey the good and bad unveils and by the story of being dragged to hell shows us the difficultness of the good even though it is highly recommended.

The temporal life and the after one is clearly the world with different time and space. However the stories of the afterlife can be seen as a want and a projection of the life we live to be more fair and just.

262 中國文化研究 第38輯

Key Words: FaYuanZhuLin, the Buddhist Uranbunjae, MuLian Saving His Mother, Offering, the temporal life, the Afterlife, 49 days

이 논문은 2017년 10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7년 11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